불행한 자들을 위로하며, 국가를 계몽하고, 제아무리 국왕 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책들에만 특별히 주어진 운명인 것이야. 이야말로 이론의 여지없이, 천상의 존재가 지상의 필멸자를 받들 수 있는 가장 엄숙한 임무라네. 자신의 작품이 한 세기에서 다음 세기로,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어지면서, 과오를 막는 방지책이자 폭군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, 또 추종자들이 왕을 드높이고 왕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, 그 왕들의 묘비는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비천하게살아온 삶의 한복판으로부터 대부분 왕들의 영광을 지워버릴 하나의 영광이 솟아오르리라 생각한다면, 어떤 사람이고 부를 가진 자들의 부당함이든 멸시든 떨쳐내지 못할일이 있겠는가?

폴

오오! 저는 그 영광이 오로지 비르지니에게 내려지기를, 그리하여 그녀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하지만 아저씨는 아는 것이 그렇게나 많으시니 말씀해주세요,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적어도 앞날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는 사리 판단이 되면 좋겠습니 다.

노인